

6/17/18

설교 제목: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5 장 1-7 절

- (호 5:1)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 (호 5: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 (호 5: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 (호 5: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 (호 5: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절관주 겔 23:31
- (호 5: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절관주** 출 10:9, 잠 15:8
- (호 5: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니 **절관주** 느 13:23, 느 13:24, 시 144:7

하나님은 4 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탄식하며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어 5 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 중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지적해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한 나머지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세우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울무와 그물을 쳐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용의 주도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큰 오산을 한 것이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 속 생각까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 5:1)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하심으로 다가오는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암시하십니다.

미스바와 다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개와 영적인 부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을 되찾아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냈고 그럼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루어낸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 오려고 하자 두려워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께로 다시 돌아와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에 응답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삼상 7: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삼상 7: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삼상 7: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삼상 7: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삼상 7:9)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삼상 7: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볼도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도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쳐부수고 대승을 거둔 곳입니다.

(삿 4:1)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삿 4: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삿 4: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삿 4: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 (삿 4: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계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 (삿 4: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 (삿 4: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 (삿 4: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계데스로 가니라
- (삿 4: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 (삿 4:13)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 (삿 4: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 (삿 4:15)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 (삿 4:16)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얹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는 곳에다 회개 운동과 신앙 부흥을
벌인다고 속여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호 5: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유인해 죽이기 위해 신앙 부흥이라는 울무와 그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 5: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10 지파중 가장 강한 지파로서 때로는 북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거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호 5: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여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 59: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없었던 까닭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영적인 음란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는 농업의 신인 바알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음란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회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허용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할 지라도 갈등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술 장사를 하건, 담배 장사를 하건, 마리화나를 재배하건 돈만 벌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이건 아니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호 5: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 군사적으로 강대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호 5: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마음에 없는 번지르한 제사 의식만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소 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약속한 복도 철회하셨습니다.

(호 5: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순결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생아'란 합법한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자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되어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음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음행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달 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새 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달은 벌을 받는 재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달에 바치는 제사가 도리어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절기에 지내는 제사가 마음이 빠진 형식만을 갖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장된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조차 하지 않고 나 혼자 생각한 것이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밀하게 죄를 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바치지 않고 형식만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속인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미스바와 다볼의 영광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